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 울산선언(폐막) 관련 보도자료(11.4~5) 스크랩

※ 키워드 : NEAR 참석 및 의장기 전달식

2021.11.08.(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아주경제신문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도시로 '성큼' …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2	신문	울산제일일보	울산 한-러 지방협력포럼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3	신문	한국경제	울산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양국 35개 최다 지방정부 참가,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울산선언문 발표	
4	신문	울산매일신문	"러시아와 협력 범위 북극까지 확장 큰 의미”	
5	인터넷	뉴스1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울산선언문 발표	
6	인터넷	뉴시스	울산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	

아주경제 인쇄하기 닫기

-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도시로 '성큼'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 '2021 울산 수소아카데미' 개최

- (울산) 정종우 기자
- (jjw@ajunews.com)

- | 입력 : 2021-11-02 05:49
- | 수정 : 2021-11-02 05:49

울산시는 3~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은 울산대교.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3~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지역은 기존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행사는 4일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또 5일에는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분야의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또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경제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UFEZ)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저차원탄소혁신소재연구센터는 오는 4일 테크노산업단지내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2021 울산수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앞서 제1회 수소아카데미(7월 15일)는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전망', 제2회 아카데미(9월 30일)는 '수소 기반 안전기술 및 수소생산' 주제로 실시됐다

이번 3회 아카데미는 강의와 이야기 공연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야기 공연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궁금한 점을 들어보고, 울산수소 아카데미에 강연해준 전문가들의 답변과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 수소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사전예약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식에 맞춰 사전예약을 통해 40명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줌을 통해 60명에게 생중계된다.

- (울산) 정종우 기자
- (jjw@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울산제일일보

HOME > 종합

울산 한-러 지방협력포럼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이상길 | 승인 2021.11.04 23:02

> 국내 지자체·러시아 지방정부 양자회담... 시, NEAR 제14대 의장단체 선정돼

- 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박종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박병석 울산시의장,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한국-러시아 정부인사와 지방정부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한국과 러시아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양국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엔

국내 17개 시·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 등 총 35개의 자치단체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8년 제1차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다.

포럼의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엔 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1대1 회담을 진행했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 회담했다.

한-러 교류협력의 거점지인 연해주와의 양자회담은 연해주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정서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에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전달했다.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실현 방안 등을 협의했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무역상담회엔 16개 러시아 대표기업이 참여했다.

러시아 정부 북극항로 공식 수행기관인 로스아톰(Rosatom)과 에너지, 수소생산 공급 국영기업인 로스아톰 오버시스(Rosatom Overseas), 극동지역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Aurora Airlines)이 참여해 울산지역 관련 기업과 만났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선 양국 정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내용 등을 담은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을 결합해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양국 모두 새로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과 더불어 수소경제·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상승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시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개최를 발판 삼아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울산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와 협력 범위를 극동에서 기회의 땅 북극까지 확장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울산 포럼을 계기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포럼으로 정착돼 세계적인 지역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길

한국경제

울산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양국 35개 최다 지방정부 참가,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울산선언문 발표

입력 2021-11-04 15:36 수정 2021-11-04 15:36

국내 17개 지자체 및 러시아 극동·북극 지역 18개 지자체와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한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은 지난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개 주제로 구성된 다양한 세션에서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로 한-러 양국 지방정부간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한다. 울산시 제공

한국과 러시아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양국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3~5일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 17개 시·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 등 총 35개의 자치단체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8년 제1차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포럼의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에는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1대1 회담을 진행했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한-러 교류협력의 거점지 연해주와의 양자회담은 연해주 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정서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전달했으며,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무역상담회'에는 16개 러시아 대표기업이 참여했다.

러시아정부 북극항로 공식 수행기관인 로스아톰(Rosatom)과 에너지, 수소생산 공급 국영기업인 로스아톰 오버시스(Rosatom Overseas), 극동지역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Aurora Airlines)등이 참여

해 울산의 관련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내용 등을 담은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해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양국 모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더불어 수소경제·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이번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개최를 발판 삼아,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울산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범위를 극동에서 기회의 땅 북극까지 확장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울산 포럼을 계기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포럼으로 정착되어 세계적인 지역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프린트 닫기

울산매일

HOME 사회 자치단체

"러시아와 협력 범위 북극까지 확장 큰 의미"

조혜정 승인 2021.11.04 22:30

▲ 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송철호 울산시장,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알렉세이 올레고비치 체쿤코프 장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병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러 정부인사 및 대표단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오늘까지 한-러 지방협력회의
울산, 연해주·사하공화국 회담
수소 기업 등 무역상담회 열려
지속가능 협력 '울산선언'도

한국과 러시아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11월 3~5일)이 양국 지방정부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 17개 시·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 등 총 35개의 자치단체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8년 제

1차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포럼의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에는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1대1 회담을 진행했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한-러 교류협력의 거점지 연해주와의 양자회담은 연해주 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정서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전달했으며,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무역상담회'에는 16개 러시아 대표기업이 참여했다.

러시아정부 북극항로 공식 수행기관인 로스아톰(Rosatom)과 에너지, 수소생산 공급 국영기업인 로스아톰 오버시스(Rosatom Overseas), 극동지역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Aurora Airlines)등이 참여해 울산의 관련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내용 등을 담은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울산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범위를 극동에서 기회의 땅 북극까지 확장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포럼의 성공개최를 발판 삼아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조혜정
jhj74@iusm.co.kr

기사 수정 : 2021-11-04 21:50 김형식 기자
입력.편집 : 2021-11-04 21:35 조혜정 기자

지방 > **울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울산선언문 발표

한-러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 기업간 협력 확대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1-11-04 16:42 송고

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한-러 정부인사와 대표단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News1 윤일지 기자

한국과 러시아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양국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울산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3일부터 5일까지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 17개 시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의 자치단체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메인 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에는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자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여해 1대1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연해주의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울산은 한국과 지리적, 정서적인 친밀감이 높은 연해주와 다양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13대 의장국인 사하공화국은 이날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단체 기를 전달한 뒤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내용 등을 담은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자체간 교류에 이어 양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무역상담회에서도 다양한 기업간 협력과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러시아정부 북극항로 공식 수행기관인 로스아톰(Rosatom)과 에너지, 수소생산 공급 국영기업인 로스아톰 오버시스(Rosatom Overseas), 극동지역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Aurora Airlines)등이 참여해 울산의 관련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양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해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특히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더불어 수소경제·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인 울산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울산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범위를 극동에서 기회의 땅 북극까지 확장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울산 포럼을 계기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포럼으로 정착되어 세계적인 지역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IS 지방 > 울산

울산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

등록 2021.11.04 15:51:20

기사내용 요약

러시아 대표 수소기업 로스아톰(Rosatom)과 지역 대기업 만남
양국 35개 최다 지방정부 참가, 기회의 땅, 북극까지 협력범위 확대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 자리매김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컨벤이션홀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한국과 러시아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양국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엔 국내 17개 시·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 등 총 35개의 자치단체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8년 제1차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포럼의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엔 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1대1 회담을 진행했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했다.

한-러 교류협력의 거점 연해주와 양자회담은 연해주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정서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송철호 울산시장, 알렉세이 올레고비치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병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러 정부인사 및 대표단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4. bbs@newsis.com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에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전달했다.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실현 방안 등을 협의했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무역상담회엔 16개 러시아 대표기업이 참여했다.

러시아 정부 북극항로 공식 수행기관인 로스아톰(Rosatom)과 에너지, 수소생산 공급 국영기업인 로스아톰 오버시스(Rosatom Overseas), 극동지역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Aurora Airlines)이 참여해 울산지역 관련 기업과 만났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선 양국 정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내용 등을 담은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을 결합해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양국 모두 새로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이 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컨벤이션홀에서 열리고 있다. 2021.11.04. bbs@newsis.com

특히 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과 더불어 수소경제·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상승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시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개최를 발판 삼아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울산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와 협력 범위를 극동에서 기회의 땅 북극까지 확장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울산 포럼을 계기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포럼으로 정착돼 세계적인 지역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